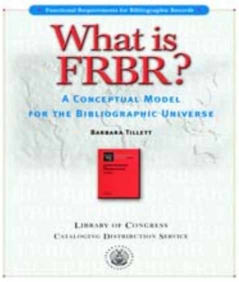


FRBR이란 무엇인가?

원저: Barbara B. Tillett. What is FRBR? (2003)

번역: 이 재선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배경

1992-1995년 IFLA의 FRBR연구그룹은 서지세계의 일반화된 관점으로 목록규칙(cataloging code)이나 목록의 완성을 의도하는 개체-관계 모델을 개발하였다.



FRBR 보고서[1] 그 자체는 개념모델의 설명을 포함한다(개체관계와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제안된 모든 유형의 자료에 대한 국가수준의 서지레코드 그리고 목록과 서지, 기타 서지적 도구에서 언급한 서지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임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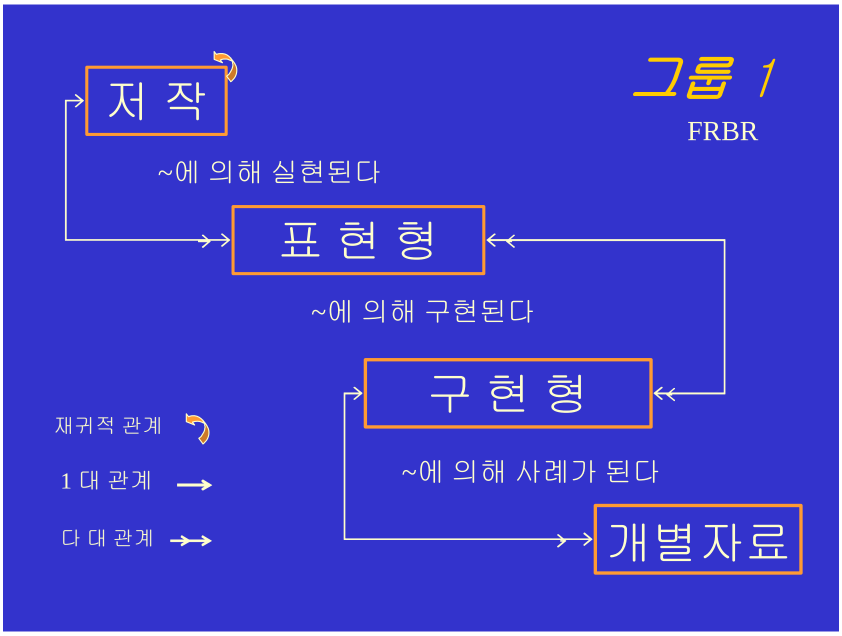
IFLA는 FRBR의 적용을 계속 검토(monitoring)하면서 그 자체의 이용과 보다 큰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르뵈프(Patrick LeBoeuf, 프랑스국립도서관 표준센터)를 의장으로 한 IFLA 목록분과의 FRBR워킹그룹은 웹사이트 http://www.ifla.org/VII/s13/wgfrbr/wgfrbr.htm 에서 온라인 토론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웹 사이트에는 프리젠테이션, 훈련도구, 새로운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용어

FRBR은 우리에게 서지와 전거레코드의 구조와 관계에 관한 신선한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장래의 목록규칙 제정자와 시스템 디자이너를 돕기 위해 보다 정확한 어휘를 제공한다. FRBR에 앞서 우리의 목록규칙은 "저작"(work)과 "판"(edition) "개별자료"(item)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경향을 띠고 있다.[2] 우리는 일상의 언어에서 조차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도서"(book)를 말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종이로 제본되어 있는 물리적인 물체를 설명하기 위해 “도서”(book)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문을 열 때 사용하는 버팀대이나 책상 다리의 버팀대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book”이라는 단어를 가끔 사용한다.

또한 “도서”(book)에 대해 말할 때, 서점에서 책을 살 때 “출판물”(publication)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우리가 ISBN을 알고 있거나 특별히 책이 낙장이 없는 양호한 상태로 있다면 구입에 문제가 없다. FRBR은 이것을 “구현형”(manifestation)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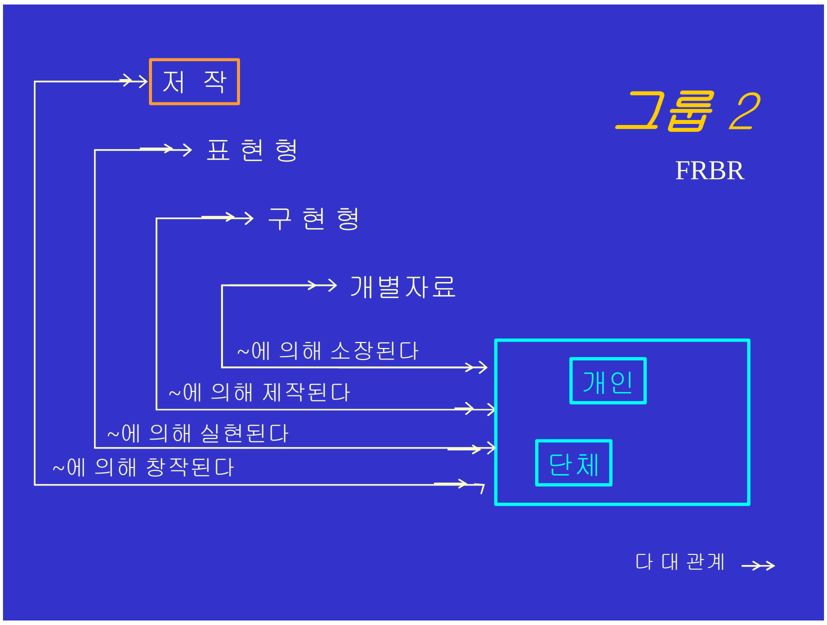
우리가 “도서(book)”에 대해 말할 때, 그 책의 번역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특정 텍스트와 특정 언어로 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FRBR은 이것을 “표현형”(expression)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도서”(book)에 대해 말할 때, 그 책을 누가 썼는가에 따라 더 높은 수준에서 추상적인 개념과 모든 언어의 버전에 기초한 개념적인 내용(content), 도서가 말해주는 스토리, 책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의미할 수 있다. FRBR에서는 이것을 “저작(work)”이라고 부른다.

개체

영미목록규칙개정합동위원회는 FRBR “그룹1”에 따라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를 의미할 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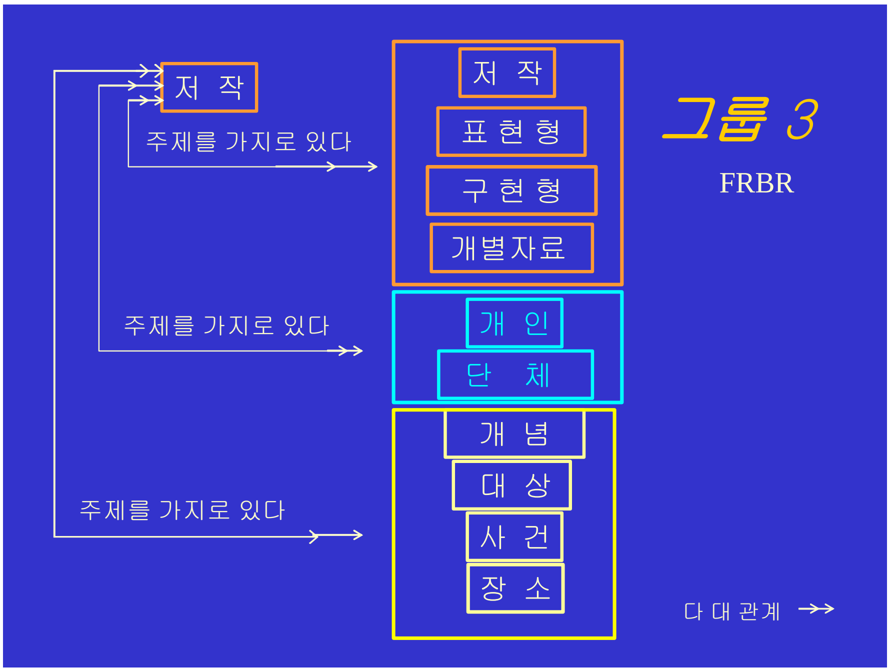
FRBR의 “그룹 2”의 개체는 특정 관계를 통하여 “그룹 1” 개체에 관계가 있는 개인, 단체이다. 이러한 관계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관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역할에 영향을 끼친다. FRBR의 모델은 그러한 역할 정보가 이용자들이 (자료를 찾기 위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서지세계를 통해 항해(nevigate)하는 이용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준다.(주: 이러한 세계는 로컬 목록에 한정될 수도 있고 웹을 통해 이용가능한 세계적인 정보자원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역할’ 정보의 가치는 FRBR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명확해진다. 우리는 서지레코드에서 링크를 잃어버렸던 역할어 용어와 그 코드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목록작성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역할어” 용어와 해당 코드의 이용을 포기하였던 실제 목록작성의 관행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때이다.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가 작성한 레코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앞날에 대해 불행스러운 결정을 내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용자들이 우리의 목록을 항해할 때 서지데이터를 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유

연성을 가지도록 전환시켜야 한다.

FRBR "그룹 3"은 저작의 주제명이다. 이것은 개념, 객관적인 대상(객체 object), 사건(events), 장소(places)이며 "그룹 1" 또는 "그룹 2"의 어떤 개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또 다른 저작에 관한 저작이나 개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저작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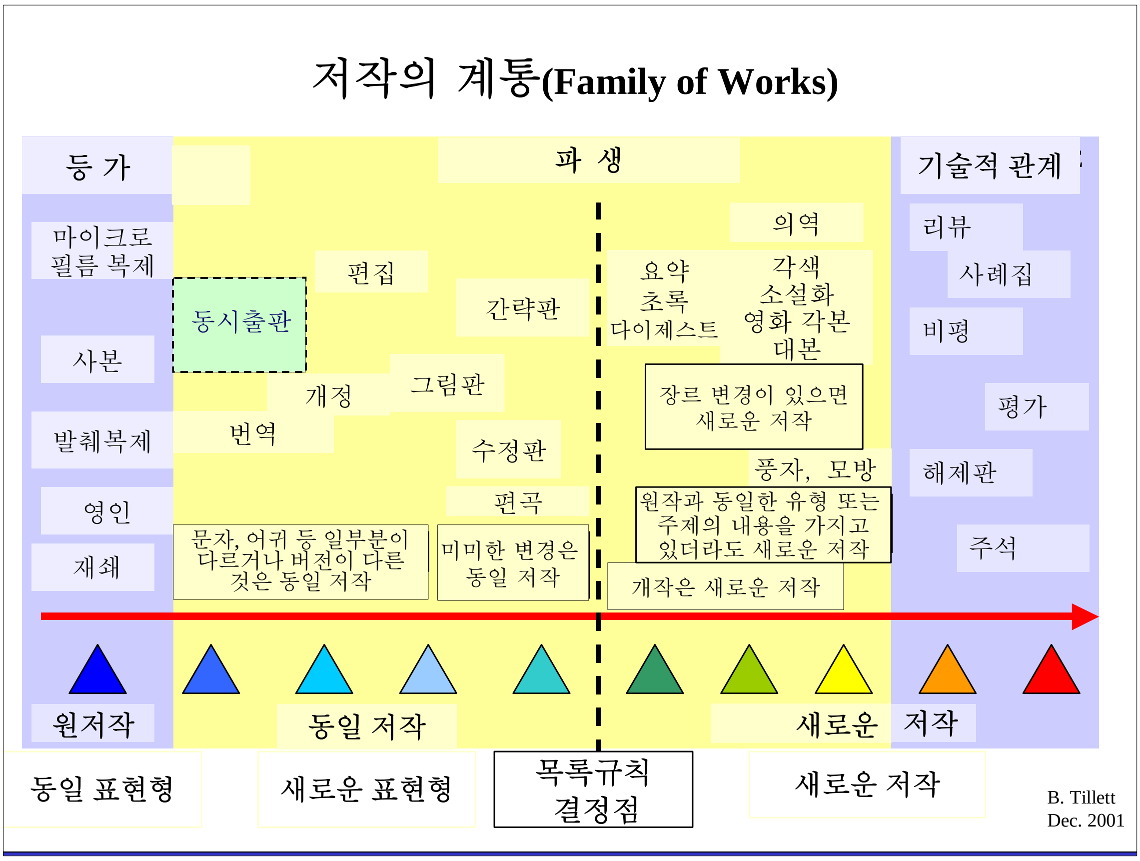


서지적 관계

저작, 표현형, 구현형, 저작으로 구분하는 제1그룹의 계층에서 개체 사이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때로는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을 수 있게 해주고 서지세계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항해할 수 있는 많은 다른 풍부한 콘텐트와의 관계가 있다.[3)]

콘텐트 관계는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로부터 연속체로 보일 수 있다. 이 연속체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등가" (equivalent)로 간주될 수 있는 몇 가지 원저작과 관련 저작, 표현형, 구현형을 시작한다. 이것은 그들이 같은 유형의 표현형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써 동일한 지적 또는 예술적인 콘텐트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파생"(derivative)관계를 통해 관련된 저작/표현형/구현형에 이른다. 이는 원저작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점차 새로운 저작이 되어 가는 매직 라인을 가로지르는 연속체를 따라 번역물, 다른 연주, 각색, 개정판 새로운 표현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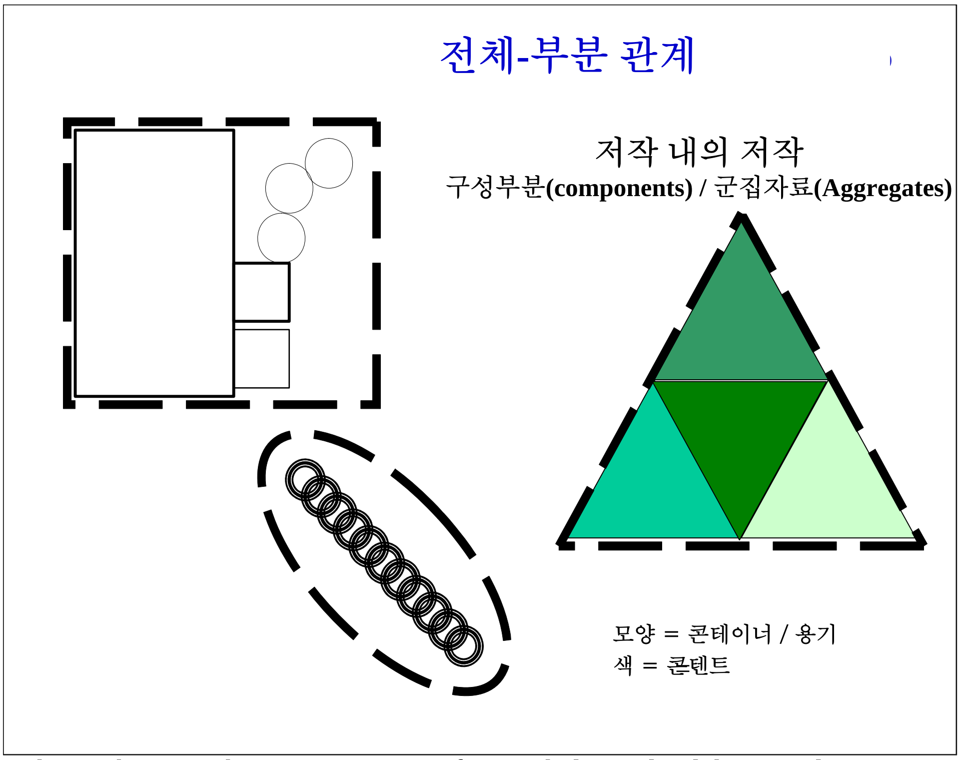
열을 만든다. 이 연속체 상의 오른쪽 맨 끝에서 우리는 원저작을 기술하는 새로운 저작을 “기술적인”(descriptive) 관계를 발견 한다. FRBR은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이용자의 과업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체/부분과 부분 대 부분의 관계가 역시 FRBR에 있다. 우리가 전자 디지털 정보원에 대한 서지적인 제어(control)를 제공할 때 특별히 의미 있는 전체/부분 그리고 부분 대 부분의 관계를 발견한다. 예를 들면 웹 사이트는 전체로서 보일 수 있으며 그 자체의 “부분”으로서 구성체를 보여줄 수도 있다. 또는 전체적으로 디지털화된 정보원과 부분으로서, 그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고 디스플레이하는 기술적인 메타데이터를 통해 추적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서의 구성물과 전체로서의 구성물을 보여줄 수 있다.

‘부분 대 부분 관계’는 ‘순차’(sequential)와 ‘수반(accompanying)’ 또는 ‘동반’(companion) 관계를 포함한다. 동반관계는 독립적일 수도 있고 의존적일 수도 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서지 레코드가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관련된 저작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구현형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작성한 대부분의 레코드는 사실 우리가 로컬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로컬의 정책에 기초하여 목록자가 직접 작성한 결정체이다. 우리는 다양한 수준의 목록을 선택할 수 있다. 저작의 컬렉션(FRBR에서는 집서라고 부른다), 개별 저작, 또는 저작의 일부분과 같은 다양한 수준을 정해야 한다. 컬렉션 수준에서 우리는 모든 부분의 기술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각 구성요소에 접근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성요소의 수준에서는 구성요소와 관련된 상위의 "전체" 수준과의 링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FRBR은 우리가 "전체"를 보이기 위해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러한 관계가 이용자의 과업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Relationships in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edited by Carol A. Bean and Rebecca Green, 2001, p. 23, "Bibliographic Relationships" by Barbara B. Tillett, Figure 3, © 2001 Kluwer Academic Publishers Boston, with kind permission of Kluwer Academic Publishers.

이용자 과업

이러한 이용자의 과업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이는 **탐색한다**(find), **식별한다**(identify), **선정한다**(select), **확보한다**(obtain)는 것을 말한다. '**탐색한다**'(find)는 것은 개체의 속성이나 관계를 통해 이용자의 검색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포함한

다. 이는 목록의 전통적인 목적인 “**탐색한다**"(find)와 “한 곳에 집중시킨다”(collocate)는 것을 조합한 것이다. ‘**식별한다**’(identify)는 찾는 것을 탐색하고 그것을 식별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주는 것이다. ‘**선정한다**’(select)는 컨텐트나 물리적 형태 등과 관련해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이용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확보한다**’(obtain)는 것은 이용자가 구입하거나 대출받거나 또는 전자적 원격 접속을 통해 개체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또한 FRBR은 항해(navigate)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래서 권리 관리나 보존 분야에 대한 과업과 같은 특정 이용자와 관련된 기타 과업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 과업은 1876년 커터(Charles A. Cutter)가 설명한 이용자가 저작을 찾고 모을 수 있도록 한 전통적인 목록의 목적을 강화한 것이다.[4)]

목록규칙에 끼친 영향

오늘날 FRBR은 목록규칙과 원칙을 재검토할 기회를 주고 있다. 영미목록규칙개정합동위원회는 용어 수정을 위해 FRBR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RBR의 관점에서 통일표목의 전통적인 링크방안을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다. 표현형 수준의 열거(citation)나 저작 수준의 열거(citation)는 개선된 전통적인 통일서명의 화신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표현형은 현행 통일서명보다 더 많은 집중과 변별 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국제음악도서관협회(IAMI), 국제도서관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ALA) 등과 같은 기타 전문 기관도 이러한 재검토에 계속 참여할 것이다.

영미목록규칙개정합동위원회는 FRBR의 표현형의 유형과 자료종별표시(GMD)를 교체하기 위해 구현형의 속성을 연구하고 있다. 온라인시스템의 디스플레이 능력(오늘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아이콘과 같은)은 현재 표현형의 유형과 컨테이너의 종류 또는 이용 가능한 용기에 관한 정보를 실어 나르기 위한 부가적인 수단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이용자의 요구를 더욱 더 만족시키는 장치로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GMD를 교체하게 될 것이다.

FRBR은 AACR 이상의 것이다. IFLA의 첫 번째 목록규칙 전문가회의는 온라인 환경 하에서 그리고 FRBR의 관점에서 1961년의 파리원칙을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서지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OCLC에서는 4천만이 넘는 데이터베이스인 WorldCat에 대해 FRBR 연구를 하였는데 80% 이상의 레코드가 저작마다 단일 구현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5] 현재는 이것을 저작자의 첫 번째 저작이 입수되었을 때 목록규칙에 따라 작성된 표목을 기초로 하여 로컬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전거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개별자료의 20% 미만에 대하여 일단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구현형이 얻어진다면 더 광범위한 저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몇 년전 Jennifer Younger에 의해 제안).[6] 더 흥미로운 것은 저작에 대한 전거레코드에 주제명표목과 분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구현형에 대해 각각의 서지레코드를 과다하게 작성하기보다는 한 번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서지레코드는 오늘날 전형적으로 특정 구현형에 영향을 끼친다.

유사하게도 우리는 저작의 전거레코드에 “저작자” 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된 “저작”(work)의 전거레코드와 각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전거레코드를 링크할 수 있다. “표현형”(expression)에 대한 전거레코드는 역시 “~에 의해 표현된”(realized by)관계의 개인 또는 단체 전거레코드에 링크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저작과 관련 표현형에 대한 인용 형태를 설정하려는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모으고 항해하기 위한 링크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서지구조의 모형은 이용자의 요구를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시스템 설계와 응용

FRBR은 장래의 시스템 설계에 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VTLS와 OCLC, RLG와 같은 벤더와 서지유틸리티에서는 그들의 장래 시스템 설계에 FRBR의 개념적인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과 다른 벤더들은 브라운(Jennifer Bowen)이 이끄는 영미목록규칙개정합동위원회의 포맷 변경 워킹그룹을 통해 FRBR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비록 미국에서는 다소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FRBR은 여러 해에 걸쳐 호주와 유럽에서 최신 시스템 설계의 기본이 되어 왔다.[7]

결론

FRBR의 용어와 관계, 이용자 과업은 이미 오늘날 디지털 환경의 관점에서 목록작성의 전통에 대한 검토를 지원해왔다. 이러한 작업은 IFLA 내에서 앞으로 수년간 전세계에 퍼져 나갈 것이며 우리를 안내할 개념적 모형을 제공할 것이다. IFLA와 관계연구자들은 세계적 규모의 목록 작성에 대한 비용 감소와 국제적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모델의 응용을 장려할 것이다.

[출처: http://www.loc.gov/cds/FRBR.html

---

1)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München : K.G. S떡, 1998. (UBCIM Publications, New Series ; v.19) http://www.ifla.org/VII/s13/frbr/frbr.htm 또는 http://www.ifla.org/VII/s13/frbr/frbr.pdf

2) Thanks to Patrick LeBoeuf for the book analogy.

3) Tillett, Barbara B., “Bibliographic Relationships.” In: Relationships in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edited by Carol A. Bean and Rebecca Green. - Dordrecht :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p. 19-35.

4) Cutter, Charles A. Rules for a Printed Dictionary Catalogue. -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76. p. 10.

5) Hickey, Thomas. FRBR algorithms & tools [online]. [Dublin, Ohio] : [OCLC], June 20, 2002. http://staff.oclc.org/~hickey/presentations/frbrAlgorithms20020620_files/frame_htm

6) Younger, Jennifer. “Resources description in the digital age.” Library Trends, v. 45 (Winter 1997), p. 462-487.

7) 최근 예로 AustLit, 덴마크의 VisualCat, OCLC의 Fiction Finder와 향후 WorldCat 설계, RLG의 웹종합목록계획, VTLS의 Virtua system에 대한 프로토타입, 진행 중인 <indecs> 개념, ABC 모델(US, IK, 호주의 공동 일치화 프로젝트), 인디애나대학의 Variations2 digital music project 등이 있다.